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방위원장 귀하

항 의 문

귀국이 2017년3월6일에 단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그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착탄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항공기, 선박의 안전확보에 아주 엄중한 문제로 되는 행위임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미사일 개발 정지를 요구한 2016년11월의 국제연합안정보장이사회 결의 제2321호에 대한 명확한 위반으로, 용서할 수 없는 폭거이다.

귀국의 행위는 핵무기근절과 항구한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 인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탄이 투하된 국가로서, 3대 비핵(非核)원칙을 국가원칙으로 삼아, 계속하여 핵무기의 근절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실험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따라서, 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시는 핵무기의 근절과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시 핵무기근절 평화도시선언’에서 밝힌 이념에 기하여, 귀국이 즉각적으로 모든 핵무기 및 핵·미사일 개발계획의 포기과 미사일 발사의 항구한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귀국에 대하여 단호히 항의하는 바이다.

2017년3월6일

일본국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시장

渡部 尚